



김민석 국무총리,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 주최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3(수) 저녁 롯데호텔(서울 소공동)에서 주한외교단을 초청하여 리셉션을 개최하였다.
 - 금일 리셉션에는 국내에 상주하는 공관장 총 118명중 110명이 참석하였다.
- 김 총리는 행사 시작에 앞서 모든 대사들과 인사를 나누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한국과 해당국가 간 양국관계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대다수의 대사들은 본국과 한국 간 관계 강화를 위해 김 총리가 자국을 방문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초청하였다.
 - 또한, 모든 대사들은 한국 국무총리가 주한외교단을 위해 리셉션을 개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였다고 하면서, 외교단에 대한 김 총리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한다고 하였다.
- 김 총리는 환영사에서 올해가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여러 외교적 성과를 거둔 중요한 해였다고 하고, 한국과의 외교를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참석자들의 노고를 평가하였다.
 - 김 총리는 1년 전 오늘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으나 민주주의를 회복하였고, 신정부 출범 후 각국과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였다.
 - 또한 김 총리는 한국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 눈부시게 복귀했다고 하고, 이처럼 한국이 빠른 복귀를 이뤄낼 수 있었던 데는 주한외교단의 도움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한국과 본국을 잇는 부단한 노력을 해온 주한외교단에게 사의를 표하였다.

- 아울러 김 총리는 앞으로도 한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각 국가와, 나아가 세계와 교류를 더욱 확대하며 좋은 친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샤픽 하샤디(Chafik Rachadi) 주한모로코대사(주한외교단장)는 답사에서 한국측이 오늘 리셉션을 통해 신정부와 외교단 간 뜻깊은 접촉 계기를 마련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이는 열린 마음과 배려, 세심함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소통해온 한국의 전통을 잘 보여준다고 하였다.
- 또한 하샤디 대사는 올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고, 비록 수 주가 지났지만 APEC의 의의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하였다.
 - 특히, 하샤디 대사는 APEC 정상회의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덕분에 참석자들 간 활발한 소통이 가능했다고 하고, 이는 국제무대의 대화 촉진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 아울러 하샤디 대사는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구축, 초국경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이 외교에서 중요한바, 한국정부가 협력과 포용성의 기조하에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향후 양자, 다자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특별히 하샤디 대사는 주한외교단에 대한 김 총리의 협력과 대화의 정신에 대해 감사하는 차원에서 주한외교단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이날 리셉션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념하고 주한외교단과 함께 경주의 분위기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APEC 환영만찬시 호평을 받은 한우 갈비찜이 제공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류를 이어갔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정재상 (02-2100-2109)
	외교안보정책관실	담당자	서기관 이예은 (02-2100-2132)

반갑습니다.

제가 국무총리가 된 것이 지난 7월입니다.
이러저러한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뵈었지만

오늘 이렇게 전체를 다 한꺼번에 뵈니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올해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해이고,
또 오늘이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어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1년 전에 한국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1년이 지난 오늘 한국은 민주주의를 회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엔에서 전 세계 정상들을 만나면서
국제사회에 복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도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복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의 도움이 큼니다.

여러분들께서 본국에 잘 설명해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대한민국은 어려움을 딛고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나라와 그리고 세계와 더 많이 교류하면서
정말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라고,

특pecially 오늘은 APEC 공식 환영만찬에서
정상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한우 갈비찜이 있으니 꼭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건배 제의를 할까 하는데요.

Now, let me propose a toast to
you and your family' s health and happiness
in the coming year
and to your country' s peace and prosperity.

Cheers!